

SF의 외계인 변천사

19세기 이후 진화론따라 달라져

SF에 등장하는 외계인상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인류 문화사에서 과학적 상상력이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 되짚어 볼 수 있는 한 지표가 된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외계인도 지구인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외계의 환경이 지구와는 무척이나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고, 따라서 그런 환경에서 사는 생물은 당연히 지구인과는 완전히 다른 생리학적 특성을 지닐 것이란 점에도 생각이 미친 것이다.

17세기엔 지구인 모습으로

서구 문화사에서 외계인이 등장한 것은 17,18세기경부터이지만, 그 당시는 엄밀히 말해서 '외계인의 옷을 입은 지구인'이나 다름없었다. 지구상의 생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태적 특징, 지구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의식세계와는 전혀 다른 외계인이 등장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그 즈음에 외계의 환경과 외계의 생물들을 과학적 합리성에 맞게 추측하고 상상해보는 일은 라마르크와 다윈 등에 의해 널리 퍼지게 된 진화론에 힘입은 바가 컸다.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외계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프랑스 작가들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다. 까밀 플라마

리온의 논픽션 「현실 세계와 상상의 세계(Real and Imaginary Worlds : 1864)」는 외계인의 개념을 사실상 최초로 대중화시킨 저작으로 꼽히며, J.H.로스니의 「무한의 항해자들(The Navigators of Infinity : 1925)」에서는 인간과 외계인의 사랑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이 작품에서 인간은 여섯 개의 눈이 달리고 다리가 셋인 화성인과 연애를 한다.

이들 프랑스 작가들은 라마르크나 베르그송같은 진화론적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외계인의 개념을 통해 인간 그 자신을 인식하는 새로운 접근방법들을 개척해 냈다.

한편 다이윈의 진화론 중에서도 적자생존설(適者生存說)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영국에서는 프랑스와 달리 외계인들을 인간의 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많았다. 대표적인 예가 SF의 고전인 H.G. 웰즈의 「우주전쟁(The War of the Worlds : 1898)」으로서, 여기 등장하는 화성인들은 지구를 침공하여 무자비한 살상을 저지른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이른바 '펄프 매거진(pulp magazine)'으로 불리는 싸구려 대중잡지들이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이 잡지들을 통해 수없이 많은 SF들이 발표되었는데, 거기서 외계인은 통속적인 우주 활극(space opera)의 조연으로 전락하여 '지구인 영웅만들기'에 일조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었

다. 예를 들어 191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던 에드가 라이스 버로우즈의 연작소설 「화성」시리즈를 보면, 지구인 주인공이 화성에 가서 화성인들을 거느리고 다른 화성인들을 무찌르며 화성의 공주와 사랑을 나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E.E.스미스의 「렌즈맨(Lensman)」시리즈는 천사와 악마의 고전적인 선-악 대비구도를 대립되는 두 외계 종족으로 형상화시켜 역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이 작품 역시 지구인들이 주인공 영웅으로 등장하고 외계인들은 모두 조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이 '외계인'이란 발상 자체를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개념으로 각인시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와는 달리 좀 더 순수한 과학적 입장에서 우주의 어느 곳인가에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작품들도 있다. 지금은 하나의 용어로 완전히 정착된 '최초의 접촉(first contact)', 즉 지성을 가진 외계인과 최초로 접촉한다는 내용은 이런 영화들의 변치않는 주제이다. 그 중에서도 교과서적인 모범으로 꼽히는 것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977년에 발표한 영화 「미지와외의 접촉(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으로서, 다큐멘터리를 방불케하는 생생한 사실적 묘사와 그 어느 작품보다

**SF에 등장하는 외계인 상은 과학적 상상력에 의해 변천되어 왔는데
17~18세기에는 외계인도 지구인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으나
19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외계인은 외계환경과 진화론에 의거
지구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두드러지는 합리적 설정 및 빼어난 영상 등으로 오늘날엔 고전의 대접을 받는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외계인은 인간처럼 두 팔, 두 다리가 달린 휴머노이드형의 몸체에 머리는 크고 키는 작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일부 과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이처럼 휴머노이드형의 외모를 갖춘 생명체만이 높은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한다. 두 손이 자유로워야 창조적인 활동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80년대 외계인 친근감이...

1980년대 들어 국제 정세가 해빙 무드를 맞고 서서히 데탕트시대가 열리면서 무시무시한 괴물 외계인 대신 우호적이고 친근감을 주는 외계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2년에 발표된 「E.T.」라든가 1984년의 「스타맨(Starman)」, 또 1985년에 발표된 「코쿤(Cocoon)」 등은 모두 따뜻한 심성을 지닌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했다가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영화가 아닌 SF문학에서는 훨씬 더 정밀한 과학적 묘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예는 SF작가 할 클레멘트에 의해 창조된 외계인들이다. 그가 1953년에 발표한 「아이스월드」라는 장편에는 범인을 쫓아 지구로 온 외계인 수사관이 등장한다. 그런데 그 외계인의 고향별은 기온이 섭씨 4백도에 이르는 초고온 세

계이며, 또한 그들의 몸은 규소(실리콘)를 기본으로 하는 신체 신진대사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지구상의 생명체는 인간을 포함해서 대부분 탄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가 범인을 추적하여 지구로 와 보니 유행조차도 얼어붙는 무시무시한 혹한의 행성이었다. 그래서 그 외계인은 강력한 방한복으로 완전무장한 채 수사에 임한다.

그의 또 다른 작품인 「중력의 임무」는 더 괴상한 별천지를 묘사하고 있다. 이 소설의 무대는 백조자리 61번 별 주위를 도는 가상의 행성 '메스클린'. 이 행성의 질량은 목성의 16배이지만 자전주기가 17분 45초로 매우 짧기 때문에, 메스클린은 원심력에 의해 납작하게 찌부러진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중력가속도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그 행성의 표면은 고농도에 고압의 수소 대기와 메탄의 바다로 뒤덮여있으며 기온은 섭씨 1백70도에 달한다. 이런 환경이라면 지구의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작가는 수소를 호흡하고 메탄과 암모니아를 신진대사의 기본물질로 삼는 지성생물을 창조해 냈다. 이들은 강력한 중력에 적응하기 위하여 납작한 모양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높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중력이 너무나 강해서 높이가

30cm 정도만 되는 절벽에서 추락해도 거의 사망하므로.

1980년대 들어 로버트 포워드라는 작가는 이런 개념을 더 발전시켰다. 그의 장편 「용의 알」에 등장하는 별은 중성자성이다. 중성자성이란 태양과 같은 항성이 수명이 다하여 폭발한 뒤, 그 때의 압력에 의해 극도로 압축된 중성자 덩어리이다. 이러한 중성자 별은 크기가 겨우 수십킬로미터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밀도 때문에 질량은 태양과 맞먹을 정도이고 표면중력도 상상을 초월한다. 「용의 알」에 등장하는 중성자성은 표면중력이 무려 지구의 6백70억배나 되는데, 인간의 탐사선이 이 별에 접근하여 관측해 본 결과 놀랍게도 그 곳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지구인들에 의해 '체라'라는 이름이 붙은 이 생명체는 중성자별의 특성상 자기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조금만 이동을 해도 몸의 모양이 급격하게 변화하며, 에너지 신진대사의 방식도 지구상의 생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시간 감각이 놀라우리만치 빠르다. 그래서 '체라'는 인간보다 1백만배나 빠른 시간적으로 인해 처음 지구인과 접촉한 뒤 불과 하루만에 지구에서의 2천7백년에 해당하는 정도의 발전을 이룩해 낸다.

21세기에 더 확장될 과학의 지평이 과연 SF적 상상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외계인상이 또 나올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⑤7

朴相俊 <SF과학해설가>